

'6연패 강등권' 광주FC, 반등 열쇠 찾는다



내달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서 대전전 유일 한자릿수 승점...구명난 수비 보완 등 과제

끝없는 연패 터널에 갇힌 프로축구 광주FC가 반등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

광주는 오는 5월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즈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앞서 광주는 지난 26일 FC안양과의 경기에서 2-5로 패배하며 6연패 수렁에 빠졌다.

그 결과 성적은 1승 3무 6패 승점 6으로 리그 12위. 연일 패배가 계속되면서 좀처럼 강등권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승점 또한 리그 유일 한자릿수다. 인접한 순위에 10위 김천FC1995, 11위 부천FC1995 역시 승점 10점으로 두자릿수 승수를 기록 중이다.

이번 대전전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리그 종료까지 강등권 탈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다음 시즌은 K리그1·2팀 수 개편과 맞물려 다이렉트 강등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최하위에 머물 경우 승강 플레이오프(PO)를 치러야 한다. 올 시즌은 연고 협약이 종료되는 김천 상무가 최하위일 경우엔 승강 PO가 열리지 않는다. K리그1에서 강등되는 팀 역시 없다. 다만 김천이 아

닌 다른 팀이 최하위일 경우엔 승강 PO가 열린다. 이 경우 K리그2 3~6위가 펼치는 PO 준우승팀과 맞붙어야 한다.

3년 연속 K리그1 잔류를 이뤄낸 광주가 다시 2부로 강등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현재 광주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수비다. 최근 6연패 과정에서 무려 20실점을 쏟아냈다. 특히 FC서울과 울산HD, 안양전에서는 각각 5실점 대패를 기록했다. 시즌 전제로 넓혀봐도 23실점으로 압도적 최다다. 울산과 인천(15실점)과도 8실점이나 차이가 난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견줄 수 없이 무너지는 게 문제다.

공격 또한 답답한 상황이다. 올 시즌 10경기에서 7득점으로 리그 최저 득점에 머물고 있다. 슈팅 수는 83개로 11위, 유효슈팅은 28개로 리그 최하위권이다. 기회를 만들어도 마무리로 연결하지 못한다.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가 뼈아픈 대목이다.

이미 상반기 고난길은 예상됐다. 주축 선수들의 이적으로 전력 누수가 발생한 데다 FIFA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선수단 구성

이 쉽지 않았다. 여름 이적시장이 열리기 전까지는 제한된 자원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부상 악재까지 겹쳤다. 베테랑 최경록과 신창무 등 공격에서 비중이 큰 자원이 이탈하면서 팀 전력은 더욱 약화됐다. 공격 전개와 마무리 모두 답답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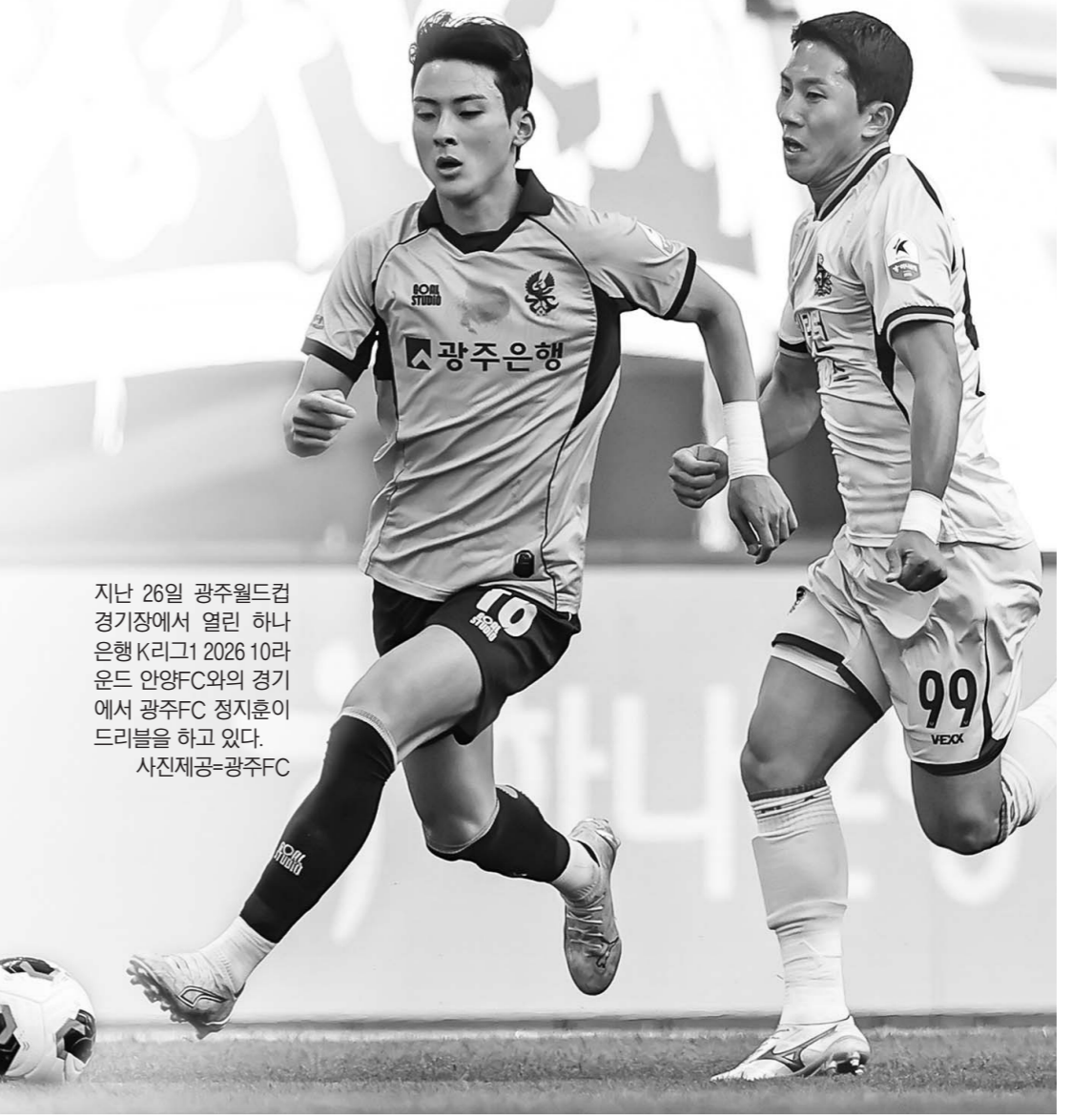
광주는 유스 출신 선수들을 대거 풀입하며 버티고 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프로 선수들과 경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광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망주들을 성장시켜야 한다. 제재가 풀리는 여름시장(6월)에서 빠른 반등을 위해서는 선수단 전반에 걸친 전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하는 과제 또한 남아있다.

이번 경기 상대인 대전은 승점 12점으로 리그 7위에 위치해 있다. 최근 경기에서 울산을 4-1로 완파하며 분위기가 한층 올라와 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주축 선수인 마사가 척추 부상을 당한 점은 약재다. 여기에 광주는 대전과의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로 우위를 점했다. 광주 입장에서는 연패 탈출을 노릴 절호의 기회다.

광주가 이번 대전전에서 연패 탈출과 함께 팀의 반등을 이끌 인재가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0라운드 안양FC와의 경기에서 광주FC 정지훈이 드리블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안세영 선봉' 한국 여자 배드민턴, 우버컵 8강행

조별리그 3차전서 태국 완파...조 1위 15게임 무실세트...3번째 우승 정조준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2026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우버컵) 8강에 안착했다.

한국은 29일(한국시간) 덴마크 호르센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태국을 5-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 15게임을 모두 쓸어담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2년마다 열리는 우버컵은 남자단체 세계선수권인 토머스컵과 함께 배드민턴 단체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다.

한국은 2010년과 2022년 정상에 오른 데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올해 초 아시아선수권 여자 사상 첫 우승을 일군 한국 여자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스페인과 불가리아를 각각 5-0으로 완파한 데 이어 태국전까지 셋아웃 승리를 거두며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조별리그 3경기 모두 첫 주자로 나서 흔들림 없는 경기력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세계랭킹 3위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단식 김가은(삼성생명), 심유진(인천국제공항), 정나은(화순군청)-이연우(삼성생명) 조도 고른 활약을 펼치며 탄탄한 전력을 입증했다.

특히 한국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조별리그'를 완성하며 토너먼트 전진을 밝혔다.

단식과 복식 모두 안정감을 보이면서 공수 균형을 갖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8강 대진은 추후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조별리그를 완벽하게 통과한 한국이 기세를 이어 통산 세 번째 우버컵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2026 세계여자단체선수권대회'(우버컵) 8강에 안착했다. 연합뉴스

MLB 첫 부자 단장-감독 탄생 매팅리, 필라델피아 감독 대행 선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역사상 처음으로 아들이 단장, 아버지가 감독을 맡는 사례가 나왔다.

필라델피아 필리스 구단은 28일(현지시간) 롭 톰슨 감독을 경질하고 돈 매팅리(65) 벤치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매팅리 대행의 아들인 프레스턴 매팅리(38)는 필라델피아의 단장을 맡고 있어, 아들이 아버지의 상사가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USA투데이는 "매팅리는 아들의 지휘 아래 일하게 됐다"며 "MLB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매팅리 대행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뉴욕 양키스의 간판타자로 활약한 스타 선수 출신이다. 은퇴 후 양키스에서 타격 코치, 벤치 코치를 지냈고 이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타격코치를 거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저스 감독을 맡았다.

당시 매팅리 대행은 류현진(현 한화 이글스)의 MLB 안착을 도왔다.

이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마이애미 말린스 감독을 지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토론토 블루재이스 벤치 코치로 활동했다.

필라델피아에는 올해 벤치 코치로 부임했다. 벤치 코치는 단장보다 감독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부자가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개막 약 한 달 만에 감독대행 증책을 맡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매팅리 대행의 아들인 프레스턴 매팅리 단장의 커리어는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야구 선수의 길을 걸었으나 마이너리그에서만 뛰다가 2011년 은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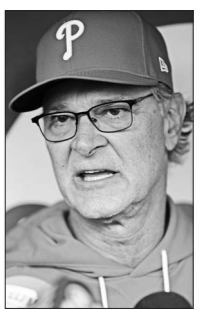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스카우트로 프런트 생활을 시작했고 2023년 필라델피아 부단장, 2024년 단장으로 고승 승진했다.

매팅리 감독 대행은 2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벅크 파크에서 현지 매체들과 만나 아들과 관련한 질문에 "난 아기가 마음에 든다"며 농담한 뒤 "불편한 상황은 아니다. 우리 둘 다 경기에 이기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MLB닷컴은 "단장과 감독은 동료지만 긴장감이 있는 관계"라며 "특히 선수단 내에선 외부는 물론 프런트 조직에도 알려서는 안 될 비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던 필라델피아는 올 시즌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필라델피아는 감독 경질이 라는 강수를 택했다.

연합뉴스



매팅리 감독 대행



광주여대는 지난 28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대부 경기에서 울산대를 107-70으로 완파했다. 사진제공=광주여대

광주여대 농구부, 울산대에 107-70 대승

이서현 중심 고른 득점...공수 조직력 앞세워 완승

광주여자대학교 농구부가 울산대학교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광주여대는 지난 28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여대부 경기에서 울산대를 107-70으로 완파했다.

이날 광주여대는 경기 초반부터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앞세워 상대 공격을 차단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이후 빠른 공격 전환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점수 차를 벌였고,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리드를 지켜냈다.

선수들의 고른 활약도 빛났다. 이서현(스포츠재활학과 1년)을 중심으로 득점이 이어졌다. 강경아(스포츠학과 4년), 안효준(스포츠재활학과 1년), 지연수(초등특수교육과 4년), 오현비(초등특수교

육과 2년), 이하은(초등특수교육과 1년) 등도 공수 양면에서 제 몫을 해내며 승리에 힘을 보탰다.

경기 후 김태훈 감독은 "선수들이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역할을 수행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기를 계기로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경기에서도 준비한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여대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경기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고, 남은 일정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가정의 달 맛이 '챔필시네마' 연다

내달 5일·24일 중앙테이블석 개방 500명씩 초청...영화 '슈가' 상영도 시구 정소명 군 참여로 의미 더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KIA타이거즈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기 에 나선다.

KIA는 가족 팬들을 위한 이색 이벤트 '챔필시네마'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챔필시네마는 야구 경기 종료 후 중앙테이블석을 영화관처럼 개방해 대형 전광판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로, 야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24일 두 차례 열린다.

5일에는 2026 키즈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500명을 모집하며, 24일에는 올 시즌 직관 이력이 있는 팬 500명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관람객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다.

참가자 전원에게 하츠포핑 캔디가 증정되며, 어린이날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티니핑 리유저블백도 추가 제공된다.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상영작은 올해 1월 개봉해 감동을 전한 가족 영화 슈가다. 난치병인 1형 당뇨병을 앓는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병마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



챔필시네마에서 상영될 영화 '슈가'

로, 가족의 의미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어린이날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자 모티브가 된 정소명 군이 5일 어린이날 홈경기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라 의미를 더한다. 경기와 영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특별한 하루가 될 전망이다.

KIA는 이번 챔필시네마를 통해 야구장을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가족 문화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어린이날 홈경기를 찾는 팬들에게 야구와 영화, 감동이 어우러진 색다른 추억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된다.

챔필시네마 티켓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은 구단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